

[아버지 칼럼 6] “아버지들이여! 이제 말하세요”

박필 목사 / 페이지 수: 2

베스트셀러였던 김정현씨의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아버지 한정수는 50대의 공무원입니다. 대학을 나와 공직에 몸담아 우리네 보통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정에 충실한 아내와 대학에 다니는 예쁜 딸, 고등학교를 다니는 막내아들, 우리네 보통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버지가 암으로 5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 엄청난 사실을 혼자 끌어안고 거부도 하고 절망도 했으나 자기 자신보다 남은 가족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가족이 생활해 갈 제과점이라도 하나 마련할 양으로 복덕방을 전전합니다. 그러다가 늦은 밤 자신의 절망감을 술로 감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는 그를 무능한 남편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어느새 아버지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아내와 아이들은 병든 아버지를 안방에서 쫓아냅니다. 외롭게 죽음을 홀로 준비해 가던 어느 날, 그는 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아버지, 전 지금 당신에게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실망은 분노에 가깝습니다. 전 언제나 당신이 다른 그 누구보다 우리의 훌륭한 아버지이시고 엄마의 남편이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번 저희를 실망시켰습니다. 언제나 술 취한 모습, 그리고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나약하고 불품 없는 모습. 왜 저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익숙해야 합니까? 저희도 남들처럼 자랑스럽고 성공한, 그리고 멋진 아버지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무능을 질타하는 딸의 편지는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욱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던졌습니다. 그는 딸의 대학 입시 때문에 한 해를 꼬박 35라는 숫자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서울대학 영문과의 정원이 35명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딸은 반드시 35번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토요일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를 찾아 딸의 합격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딸은 아버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아버지인 자기를 보고 당신이라니, 그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가족에게 철저히 거절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가족 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들이 아버지의 고통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고통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가족 간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설 속에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속에서 묵묵히 모든 고통을 속으로 삭이며 살아가는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아버지입니다. 가족은 사랑과 눈물과 기쁨,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가족의 끈은 오해와 갈등으로 얼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의 직장에서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와 무수한 인격적 모욕이 난무합니다. 한국의 아버지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모욕으로 멍든 가슴을 술로 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대개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속병을 앓으면서 힘겨운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이제 말하세요. 술로 당신의 아픔을, 고통을 삭이지 마시고 술 취한 추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며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당신의 아픔을, 눈물을, 고통을 가족에게, 아내에게 말하세요.

‘여보 나, 요즘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애들아 아빠가 무척 힘들다’ 아내는 당신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을 것입니다. 결코 당신을 밀어내는 아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설 속의 아버지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이 애절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왜 밀어냈습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을 혼자 가슴에 묻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할 때 시작됩니다. 사랑은 말할 때 표현됩니다. 사랑은 말할 때 나타납니다. 사랑은 말할 때 전해집니다. 사랑은 말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보~ 힘들지?” 할 때 아내는 당신의 사랑을 느낍니다. 당신이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정현아! 아빠는 요즘 35만 숫자밖에 안보여. 전철을 타도, 택시를 타도 35만 보인단다. 네가 35등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가봐’ 소설의 아버지가 딸 정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면 딸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불효하지. 앓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애절한 사랑을 알면 당신의 딸은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하고 당신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처절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여!
술과 울화와 짜증으로 말하지 마시고 당신의 아픔을 가족에게 말하세요. 당신의 애절한 마음을 이제는 가슴에 품어두지 마시고 말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번쯤은, 그것도 어려우면 한 달에 한번은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도 하며 가슴에 묻어 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가족은 당신으로 인해 행복해 할 것입니다. 서로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박필 /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 출처 : 두란노 아버지학교(<http://www.father.or.kr>)